

「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」
제 안 설 명 서

《 의안번호 제1772호 》

- 의안번호 제1772호 「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·운영하고 있으며, 매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.
-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서울의 자랑인 지하철은, 반세기 가까운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나날이 노후화되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
-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이 시급하나, 낮은 운임 및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서울교통공사 재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

- 또한,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경제활동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내 택배 분류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나, 이 또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.
- 이에 우리시는 국비를 확보하여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과, 노후전동차 교체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지하철 분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-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이야말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임을 고려하셔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0. 9. 8.

도시교통실장 황보연